

농민수당 시행 1년...농경연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 개최

“공익직불제·농민수당 중심으로 직접 지원제도 논의해야”

37개 광역·기초지자체 농민수당 소요예산 규모 4893억원 추정 광주시농민회 “농민수당 주민조례안 지지부진...광주도입 촉구”

전남 농민수당(농어민 공익수당) 시행 1년을 맞아 농업 예산 구조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 '농가·농업인 경영안정 및 소득지원 정책과 과제'를 주제로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유튜브 생중계(youtube.com/kreipr)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찬희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농가 소득 직접지원제도: 정책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유 연구위원은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농가 소득 직접지원제도'의 주요 쟁점과 정책대안을 다룬다.

최근 들어 지속가능 농정을 중점으로 전환하면서 '직불제' 중심 농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전국 농가인구는 지난 2000년 393만명에서 지난해 224만명으로, 20년 새 43%(-169만명) 급감했다. 농가인구와 농업소득 비중은 줄면서 "농사를 계속 짓고 싶으면 다른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는 게 유 위원 설명이다.

농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먹거리 공급이라는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등이다.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모두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세 제도 간 관계는 불분명하다.

유 위원은 "농가소득 직접 지원제도의 개편과 운영 방향을 논의할 초석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 중심으로 소득 직접 지원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익직불제 지급 기준은 농가·농지면적인 반면 농민수당은 농가당, 농민기본소득은 개인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지급방식도 다르다. 공익직불제는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고, 농민수당은 지자체가 시행 주체라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준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주관하는 농민기본소득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공익직불제가 개편되면서 경작 규모 0.1~0.5ha 미만 농가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불금은 5091억원이다. 6.0ha 초과 농가 수령 직불금 규모는 3458억원으로, 소농의 67.9% 수준이다.

유 위원 자료에 따르면 37개 광역·기초지자체가 소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농민수당 예산은 4893억원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지난해 11월 '농민수당 시행 1년 기자회견'을 열어 "해남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전남도·전북도 등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가 농민수당을 도입했다"며 "농민수당은 농업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전농 측은 여성 농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에 지급대상을 "전남에 거주하는 모든 농민"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급 금액은 연 60만원에서 연 120만원으로 올리자는 '제2 농민수당 운동'에 돌입할 의사를 밝혔다.

전농 광주시농민회는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1만8000명이 넘는 농민과 시민들이 발의한 농민수당 주민조례안이 10개월 넘도록 지지부진하다"며 농민수당 광주 도입을 촉구했다. 광주시농민회는 지난 14일 '농민수당쟁취 광주시농민대회'를 열기로 했지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를 연기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장철 식품안전관리 강화

농협 전남본부, 12월 11일까지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오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를 '김장철 식품안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지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김치가공 공장 등은 자체적으로 무, 배추 등 농산물 5개 품목과 고춧가루, 소금, 젓갈 등 양념류 5개 품목을 중점관리사항으로 선정하고 일일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원산지관리,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이다.

올해는 김장행사를 앞두고 있는 절임배추 생산 농협 및 김장행사 판매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다. 원산지증명서, 품목제조보고서, 자기품질검사 성적서 확인을 마친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게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지역본부는 김치가공 공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하나로마트 등 경제사업장에 대해서는 식품안전관리 중점사항을 안내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농가희망봉사단, 사랑의 집 고치기 이성희(왼쪽 두번째) 농협중앙회장과 김석기(맨 왼쪽) 농협 전남본부장 등 '농가희망봉사단' 40여명은 최근 해남군 한 농가를 방문해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하고 가전제품 등을 해남 용지마을회관에 전달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호남·제주권 하나로마트

'지역 상생협력 워크숍'

하루 매출 1000만원 이상인 호남·제주권 농축협 하나로마트 점장들이 모여 중장기 발전전략을 세웠다.

농협하나로유통 호남지사는 최근 농협 제주수련원에서 '호남·제주권역 하나로마트점장협의회' 임원 및 지역본부 상생협력 워크숍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하나로마트 사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세우고 하나로마트 선진경영기법 도입추진 및 마트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백희준 기자 bhj@

전국 축협, 광주서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 회의

축산물 군납 활성화를 위한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광주에서 열렸다.

광주축산농협은 지난 12일 광산구 신촌동 본점 대회의실에서 '제2차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 회의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조규용 회장(가평축협 조합장)과 각 권역별 협의회장, 농협경제지주 백원원 축산유통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호상 광주축협 조합장은 전남권 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면현안을 보고하고 축산물 군납사업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광주축협 신축 마복동 종합타운 견학을 하고, 장성 상무대 51 군수지원단에 위문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김호상 조합장은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는 군납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물론,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납품해 사회에 공헌하는 공익적 기능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난 10일 광주 임곡농협 '농업인 행복버스' 참가 농업인이 무료 돌보기 지원을 받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광주 임곡농협, 고령 농업인 돌보기 지원·장수사진 촬영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 진행

광주 임곡농협은 지난 10일 광산구 임곡동 본점에서 고령 농업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152명의 참가자는 무료 검안과 돌보기를 지원받았고, 90명은 장수사진을 무료로 촬영했다.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공동 주관한다. 복지 접근성이 열악한 농촌지역으로 찾아가 의료 진료, 장수사진 촬영, 검안·돌보기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광주 7개 특별 운영대상 지역농협 가운데 이번에는 5번째로 진행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名 作 名 作 名 作

광화문父子작명가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당시白山 선생

성스러운 탄생과 이름

세상은 좋은것도 많고 나쁜것도 많다. 이름도 좋은 이름 많고 나쁜 이름도 많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평생 마음 먹은대로 하는일 마다 잘 되고 대복을 누린다. 나쁜 이름은 매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는일 마다 실패한다. 일시적으로 성공 했다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좋은 작명가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끝으로 이름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 기본이요. 많은 성의를 표시 하는 가정이 있고 형편에 따라 조금 저렴 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곧 생명입니다. 저의 부자는 정성으로 대명작의 이름을 작명하여 전국 어디에나 보내드립니다. 나쁜이름과 상호는 새이름 (new name)으로 바꾸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작명가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 아버지가 정성으로 작명한 大名作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 大福을 받으세요

작명가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白山 선생 (MBC TV 방영)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비대면 작명을 환영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광화문시대빌딩 715호 (서울정부종합청사외 외교부 중간 광화문시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